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종려주일 제목 : 첫 번째 종려주일 성경: 누가복음 19장10-28절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지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관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눅 19:10-28)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축하한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누가복음 19장이 곧 그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였다.

바로 전날에는 여리고라는 성에서 삭개오를 만나 그 집에 유숙하셨다. 삭개오는 보잘 것 없는 외모를 지녔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메시지가 있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어있다.

삭개오가 결단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다. 이 또한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셨다.

이는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신 것과 같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삭개오의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본격적인 소나기가 오기 전에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처럼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삭개오의 집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셈이다.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내가 내 집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에 해당하는 구절이 11절이다.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당장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였다.

-틀림없이 군사적인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제자들은 대신들이 될 것이라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달랐다.

-우선 예수님은 군사적인 도발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전통적인 왕을 거부하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소중히 여겨 스스로 섬기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이 섬김을 본받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까지를 모두 계획 하고 계셨고 성령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소망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먼저 임하는 것일까? 누구에게 덜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고 빼앗길 것인가? 열드나의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당시 세상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당해야 하는 고

난도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내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십분 잘 활용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부분이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함이며, 항상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나의 죄와 저주가 끊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이 왕이시니 항상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진정한 승리는 실수하지 않거나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수하여도 만회하는 것이고 망하여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내 인생의 감독은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내 자신이다.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는다.

-진정한 왕권은 감히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아무리 대적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다.

-예수님은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거리낌 없이 걸어 가셨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대적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셨다.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려고 오셨다.

-왜냐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난을 자청하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죄를 씻을 수 있으며, 저주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며, 또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

-왜냐면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열므나 비유의 의미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 한 므나는 복음을 상징한다. 누군가는 정말 예수님처럼 열심히 살아서 열므나나 더 남기고 또 남이 잃어버린 므나까지 차지한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또는 끊어지지 않는 저주가 남아 있어서 다섯므나를 더 남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나 남이 잃어버린 므나까지 차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므나까지 빼앗기게 된다.

-우리에게 남겨진 경주는 열므나냐, 다섯므나냐, 아니면 빼앗기느냐다.

<찬양예배>

주제:고난주간 제목:예수님의 말씀이 곧 해답
말씀:누가복음 20장19-26절

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20 이에 그들이 옛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1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23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25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눅20:19-26)

인생에 왜 해답이 없을까?

해답은 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의 눈은 눈의 주인이 보고 싶은 것만 잘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을 정확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다.

생명이 곧 해답. 생명이 되는 진리가 해답.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곧 해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곧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나의 눈은 reset 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주의 영광 때문에 모든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서 밝히 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잡스러운 것들이 내 눈을 가린다.

내가 주의 영광을 흠모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잡스러운 것을 볼 때 나의 인생은 추락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사막에도 길이 있고, 원수들에게 애워 싸여도 두렵지 않으며,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

20 이에 그들이 옛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스스로가 의인이 되면 해답은 없다.

스스로 의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에 자기가 갖혔다는 뜻.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벗어난 문제에는 답이 없음.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만 해답이 있음.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자기 의란?

-백성을 두려워 함. 여론을 무서워함.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내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겉으로는 세금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못함.

-서기관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뭐가 그 눈을 가리고 있나?

1.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2. 백성들을 두려워함.
3.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음.
4. 가식적임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제자들에 대한 이해심이 크신 분.

-진실한 통치자시며 끝까지 아량을 베푸시나. 끝이 지나면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해답을 가장 쉬운 곳에서 찾을 수 있으신 분.

-아무리 화려한 의가 자기 앞에 있어도,

-욕심이 있으면 답은 없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면 답은 없다.

-두려움이 있으면 답은 없다.

-거짓이 있으면 당연히 답은 없다.

-자존심을 더 생각한다면 답은 없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고, 정서적이지 못하게 만들.)

-하나님 핑계를 대면 답은 없다.

-불평, 원망, 절망, 낙심하면 답은 없다.